방글라데시에 펼친 희망의 인술

글 **정재학** 작가 / 사진 **박명석** 서울아산병원 메디컬콘텐츠센터

이석로 원장은 25년간 방글라데시 빈민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며 인술을 실천해왔다.

※ **이석로** : 1964년 전남 영광에서 3남2녀의 둘째로 출생. 금호고 · 전남대 의대 졸업. 광주기독병원 전공의 · 전임의 역임(가정의학과 전문의). 1994년 방글라데시 꼬람똘라병원 파견, 현재 원장.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보령의료봉사상 등 수상. 1992년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2남1녀.

"방글라데시에서 의료봉사 할 의사를 찾습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광주기독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이석로(56) 원장은 병원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의사로서 나아가야 할 진로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눈에 띈 안내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병원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원장은 단호했다.

"전문의 정도는 돼야 의료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저 해프닝처럼 지나고 말았을지도 모를 그 일을 그는 가슴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4년여의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다시 원장을 찾았다.

꼬람똘라병원의 대기실 모습. 현지 주민들은 가난하고, 의료시설도 부족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는 병원에 남아서 교수가 되거나, 독립해서 개업의가 되는 길을 마다하고 방글라데시 오지로 떠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18개월 된 아들과 함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쌓아온 신앙도 큰 힘이 돼주었다. 처음에는 3년만 봉사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인생에서 3년 정도는 경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람과 가난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 생활을 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봉사는 서로 주고받는 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 자동차로 2시간 정도를 달리면 꼬람똘라(Karamtola)라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 1992년 한국의 기독교병원 연합단체인 콤스(Korean Overseas Medical Mission Society, KOMMS)가 이 마을에 세운 병원이 바로 꼬람똘라병원이다. 꼬람똘라병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고, 민간처방에 의지하다가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병원 설립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병원장이던 현지인 의사 1명과 함께 하루에 60~7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환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만 받고 치료해주었고, 환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무료 진료는 물론 무료 수술까지 해주다보니 환자들이 꾸준히 늘었다.

방글라데시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가난이나 열악한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한국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었다.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줘도 이곳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걸을 하는 바람에 당신이 나를 도왔고, 그로 인해 당신이 신의 축복을 받게 됐으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죠."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겪었다. 선의를 베풀고도 오히려 욕을 먹을 때면 화도 났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는 조용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다.

"더러운 물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들이 가라앉아서 윗부분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휘저으면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더러워지죠.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은 단지 물을 휘저었을 뿐입니다. 물을 휘저은 사람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물 자체가 더러운 물인 걸까요?"

그는 자신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해온 많은 일들이 남들이 알

꼬람똘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이석로 원장.

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했다. 현지인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저는 제가 가진 의료기술로 그들을 도왔지만 그들 역시 저와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치과에서 산부인과까지 갖춘 종합병원

현지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한 치료 방법도 바꾸었다. 초창기 환자들 중에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는데 치료를 해도 결핵 환자가 줄지 않은 이유가 끝까지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핵은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들은 2~3개월 정도 치료받다가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끝까지 치료받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고안한 것이 바로 '시크릿 머니'다.

"무료 진료를 해주면서도 치료에 앞서 우리 돈으로 1만5천 원 정도인 1천 타카를 보증금 형태로 먼저 내도록 하고, 치료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했죠."

이곳 사람들은 1천 타카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열심히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결핵 완치율도 높일 수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결핵과 위장병 등 현지인들의 다양한 질병을 진료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병원이 성장하려면 외과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콤스에 의사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어렵게 되자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남는 돈으로 외과 전문의 한 명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의 희생 덕분에 2002년 외과 전문의가 파견되면서 진료 영역이 확장됐고, 병원이 급성장하는 전기를 맞았다.

그는 2003년 꼬람똘라병원 원장을 맡자 병원의 자립을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다. 파견된 의사들이 모두 떠나고 외부 지원금이 줄더라도 현지 의료진만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병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지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데 집중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술을 배워서라도 가르치겠다"며 잘 모르는 술기들은 직접 배웠다. 외과가 생기면서 마취과가 필요해지자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에 나가 마취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왔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가서 내시경이나 초음파도 배우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외과 수술 몇 가지도 배우고 돌아와서 현지 의료진에게 가르쳤다.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선 장비와 초음파 장비를 잇달아 도입하고 2005년부터는 현지인 치과의사를 통해 치과 진료를 시작했다. 어려운 외과 수술을 위해 모교인 전남대 의대의 지원도 받았다. 전남대 치과와 정형외과팀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구순구개열과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수술했으며, 지금까지도 매년 무료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70만 명 이상이 실명의 고통을 안고 사는 나라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하트하트재단 후원으로 병원 내에 안과 클리닉을 열고 백내장 수술을 특화시켜 진행하고 있다. 극빈 계층에게는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일반 저소득계층에는 최소 비용만을 받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1,300여 명의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며, 다카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전역의 환자들이 시력을 되찾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진도 많이 충원해 지금은 현지인 의사 12명을 포함한 의사 14명과 내과 · 외과 · 소아과 · 정형외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를 갖춘 규모 있는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매일 300여 명의 외래환자들이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이석로 원장은 의료봉사를 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사업으로 봉사의 영역을 확장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이다. 직장을 갖기 힘든 여성들을 위해 2007년 3년 과정의 간호학교를 설립했다. 학비는 전액 무료이며, 졸업생들 중 일부

① 꼬람똘라병원 앞에서 광주기독병원 의료봉사팀과 함께한 이석로 원장(앞줄 중앙). ② 이석로 원장(가운데)은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간호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을 꼬람똘라병원에 채용해 자립을 도왔다.

는 꼬람똘라병원에 채용했다. 매년 10명씩 지금까지 100여 명이 간호학교를 졸업해 자립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사비를 모아 소규모 장학 사업도 진행했다. 장학금은 학비의 49%만 지원하고, 나머지 51%는 스스로 마련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키웠다. 1인당 연간 4천 타카(한화 약 5만6천 원)을 지원했는데, 10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은 방글라데시 청년이 150명에 달한다. 장학생들 중에는 꼬람똘라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치과의사가 되어 전남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청년도 있다.

경제적 자립 위한 다양한 사업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집에서 분만하는 사례가 많은 방글라데시의 21개 마을에 의료진을 파견해 안전 분만키트와 약을 배포하고, 임산부 대상 산전 진찰과 교육을 시행하면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을 낮췄다. 현지 학교 파견진료 및 치위생 교육, 의약품 배포 등을 통해 아동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에도 기여했다.

생계 수단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새끼 염소를 분양하거나 묘목을 나눠주고 심게 했다. 비싼 돈을 주고 인력거를 빌려서 영업하는 인력거꾼들의 자립을 위해 인력거를 만들어주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갚도록 했다. 마을이나 학교에 우물을 파는 사업과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단체 설립 등 방글라데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대 약대를 졸업한 이 원장의 부인(김진영 · 54)도 약사 경력을 살려 간호학교의 약학 강의 등을 지원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빈민가에서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며 영 · 유아 60여 명을 돌보고 있다.

이석로 원장은 2011년 더욱 열악한 환경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 방글라데시 외곽 통기 지역에 위치한 빈민진료소로 활동 장소를 옮긴 적이 있다. 통기진료소는 미국의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월 2천 달러로 진료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통기진료소에서도 자립에 주력했다. 무료진료와 유료진료 파트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통기진료소에 머물면서 후원금을 2천 달러에서 5백 달러로 낮추고, 자립도를 8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2016년 그는 다시 꼬람똘라병원으로 돌아왔다. 3년을 예상하고 왔던 방글라데시 생활이 어느덧 26년째로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이곳에 언제까지 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다가올 앞으로의 '3년'만을 생각한다.

"3년마다 스스로를 평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현지인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원장의 봉사 활동은 쉼이 없다.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그가 서있을 곳이라는 생각이다.